

4 notes 멜로디 패턴을 이용한 즉흥 연주 기법에 관한 연구

김성배*

*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

e-mail:vianmusic@chungwoon.ac.kr

A Research on improvisation technique by using 4 notes melodic patterns

Sung-Bae Kim*

*Dept of Applied Music, ChungWoon University

요 약

모던 재즈 시기에는 멜로디의 패턴을 이용한 즉흥 연주 기법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. 본 논문에서는 네 개의 음을 이용한 멜로디 패턴을 어떻게 활용하고 습득할 수 있는지, 그리고 네 개의 음만이 아닌 확장된 패턴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연구해 보고자 한다.

1. 서론

재즈 역사에서 스윙(Swing era)이나 비밥 시대(Bebop era)에는 노래하는 듯한 멜로디나 블루스(Blues), 비밥(Bebop)적인 릭(lick)의 조합이 즉흥 연주(improvisation)의 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. 그 후 마일즈 데이비스(Miles Davis)와 존 콜트레인(John Coltrane)과 같은 인물을 기점으로 한 모던 재즈 시대(modern jazz era)에는 이런 것들과 더불어 일정한 구조를 갖는 멜로디의 패턴(melodic pattern)을 이용한 즉흥 연주(improvisation) 기법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. 본 논문에서는 네 개의 음을 이용한 패턴을 어떻게 활용하고 습득할 수 있는지, 그리고 이로부터 어떻게 확장된 패턴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연구해 보고자 한다.

네 개의 음으로 나올 수 있는 순열(permutation)은 아래와 같으며 그 수는 총 24개이다.

[표 1] 24 Permutations of 4 notes

1234	2134	3124	4123
1243	2143	3142	4132
1324	2314	3214	4213
1342	2341	3241	4231
1423	2413	3412	4312
1432	2431	3421	4321

'도미파솔' 네 개의 음을 선택해 보자. '도미파솔'을 위의 순열에 대입시켜 보면 아래와 같은 멜로디를 얻을 수 있다.

[악보 1] '도미파솔'을 이용한 순열의 예

[악보 1]에서 보여지듯 순열에 의해 같은 음으로

다양한 멜로디의 커브(melodic curve)를 얻을 수 있다.

2. 본론

본론에서는 '도미파솔' 네 음의 순열 중 패턴 1342를 활용한 다양한 멜로디 라인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.



[악보 2] '도미파솔'의 1342 패턴

2.1 Diatonic Intervallic Circle

장음계(Major Scale), 화성 단음계(Harmonic Minor), 가락 단음계(Melodic Minor)에서 멜로디 패턴을 적용하여 순차적으로(stepwise) 상행해본다. [악보3]은 패턴 1342를 C Major Scale, C Harmonic Scale, C Melodic Scale에 적용한 것이다.



[악보 3]

[악보4]에서와 같이 C Major Scale 안에서 규칙적인 음정을 가지고 이동해 보자. 3도씩 올라가는 진행을 보여주고 있고, [악보5]는 같은 스케일 안에서 멜로디 패턴이 3도 올라갔다가 2도 내려오는 진행을 보여주고 있다.



[악보 4]



[악보 5]

2.2 Chromatic Intervallic Circle

이번에는 같은 멜로디 패턴을 반음계(Chromatic Scale) 안에서 특정한 음정으로 규칙적으로 이동하며 상행하는 연습을 해보자. 이 경우 음정을 균일하게 유지하면서 이동해야 한다.([악보6])



[악보 6]



[악보 7] 장2도, 단3도, 장3도 간격으로 이동

이러한 패턴은 반음계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어떤 코드에도 적용할 수가 있다. 즉 코드 진행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. 효과적인 화음 밖의(outside of harmony) 즉흥 연주 방법 중 하나이다. [악보8]은 웨인 쇼터(Wayne Shorter) 작곡의 'Witch Hunt'¹⁾ 중에서 허비 행콕(Herbie Hancock)의 솔로를 발췌한 것이다. '솔도레' 3 notes로 이루어진 멜로디 패턴이 한코드 내에서 단3도씩 상행하고 있다.



[악보 8] 'Witch Hunt' 허비 행콕의 솔로 중에서

2.3 Inversion의 경우

다시 '도미파솔' 패턴으로 돌아가서 세 개의 자리

1) <Speak No Evil>(Blue Note, 1965)에 수록된 색소폰 주자 Wayne Shorter(August 25, 1933)의 곡. 트럼펫에 Freddie Hubbard, 피아노에 Herbie Hancock, 베이스에 Ron Carter, 드럼에 Elvin Jones가 앨범에 참여하고 있다.

바꿈(inversion)된 라인을 도출해 보자.



[악보 9] Inversions of 'do-mi-fa-sol' pattern

이 중 마음에 드는 패턴을 고르고 그것을 primary cell로 삼아 본론 2.1과 2.2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이동하는 연습을 해볼 수 있다. [악보10]은 세 번째 자리바꿈(솔도미파)을 반음계적(chromatical)으로 장3도씩 상행하여 도출한 라인이다.



[악보 10]

2.4 두 개의 순열의 조합

네 음의 멜로디 패턴을 확장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. 그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두 개의 다른 순열을 조합하여 멜로디를 -조금은 긴- 만드는 것이다. 또한 그 멜로디를 새로운 cell로 삼고 앞서 제시한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.

[악보11]은 위단은 '도미파솔'의 첫 번째와 세 번째 자리바꿈이며, 그 아랫단은 첫 번째 자리바꿈(미파솔도)의 순열 중 1342와 세 번째 자리바꿈의 1234를 조합한 멜로디 라인이다.



[악보 11]



[악보 12]

[악보 12]은 [악보 11]에서 조합하여 만든 새로운 라인을 장2도로 상행해 본 것이다.

3. 결론

본 논문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네 음의 멜로디를 기준으로 생략(omit), 혹은 첨가(add)함으로 새로운 멜로디 패턴을 만들 수도 있다. 또한 8분음표 외에도 삼연음, 16분 음표를 사용하여 리듬적으로 다양함을 줄 수 있다. [악보 13]은 [악보 10]의 멜로디를 삼연음으로 바꾼 것이다.



[악보 13]

본론 2.1에서 다루었던 멜로디 패턴을 12 key의 메이저, 마이너 스케일들에서 연습함으로써 어떤 코드에든 적용할 수가 있으며, 그 과정에서 멜로디 패턴을 귀와 눈으로, 손의 근육으로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.

멜로디 패턴의 순열을 습득함으로써 즉흥연주자는 멜로디를 발전시키는 가능성의 폭을 넓힐 수 있다. 구조적인 멜로디 패턴의 규칙적인 -때로는 불규칙적인- 이동은 듣기에도 매력적이다. 다만 패턴을 활용한 즉흥연주를 너무 남발할 경우 다소 기계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. 그러나 적절한 만큼 사용하고 거기에 감정 표현(emotional expression)을 싣는다면 음악적인 연주를 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.

참고문헌

- [1] Jerry Bergonzi, 'Melodic Structures', Advance Music, 1992
- [2] Nicolas Slonimsky, 'Thesaurus of Scales and Melodic Patterns'
- [3] Hal Crook, 'How to Improvise', Advance Music, 1991
- [4] Vardan Ovsepien, 'Mirror Exercises', Vardan Ovsepien, 2011